

신창은 신태희 방국소식 1 호

2019 년 10 월 28 일



사랑하는 친구, 동역자 여러분께

저는 지금 지난 6 년간 저희가 잠 들었던
똑같은 이불이 깔린 똑같은 침대 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웬 침대 얘기인가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침대는
아버지께서 베푸신 기적의 결과물이라
제게는 감사와 감격 그 자체입니다.(아직은
아무 가구도 없는 상태라 침대가 의자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낸 7 월 이후
여러분께 소식을 전하지 못했던 큰 이유는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간절히 소원했던 1 년 비자 대신 3 개월
단수비자를 받아두고 어떤 순서로
방글라데시에 입국해야 하는건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지난 해 말 안식월을 위해
인도를 떠나올 때 사역지에 대해 100%
결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짐을 정리해
그곳에 보관하고 최소한의 짐만 챙겨서
떠났었습니다. 짐을 방글라데시로
가져올지 아닐지 일단 방글라데시로 들어
가서 현지의 사정을 알아본 후 마날리로
가서 정리를 해야지...생각하고 있었는데
단수 비자를 받고 보니 짐정리를 포함한
인도에서의 모든 일들을 해결한 후
방글라데시로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 이삿짐을 인도에서
방글라데시로 통관 시키는 문제를 알아
보던 중 저희가 일할 병원 근처의 국경을
통해 통관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와 함께
사역하던 전임 병원장을 비롯한 마날리의
친구들이 트럭으로 국경 근처 도시까지
짐을 보내주어서 저희가 마날리까지 가는
수고를 덜어 주었습니다. 운송에 2~3 주
걸린다는 소식에 짐이 도착할 무렵 한국을
떠나 직접 국경 근처의 도시로 가서 통관을
알아 보는데 만나는 사람들 마다, 때론
같은 사람도 때마다 말이 다른 겁니다.
하루는 가능하다고 했다, 하루는 절대
불가능 하다고 했다, 하루는 가전제품과
침대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댔다, 하루는
아무것도 안된다고 했다...결국 며칠을

머무르는 동안 저희는 아주 개인적이고 의미있는 물건을 제외한 모든 물건을 현지 사역자에게 드리기로 결정하고 힘들지만 모든 박스들을 열어 필요한 것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의 집으로 짐을 옮겨 오기로 한 날, 무역을 하시는 한 방글라데시 분이 NGO 사역자가 이삿짐을 옮기는 경우엔 관세 없이 옮기는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태껏 저희가 가장 고민하고 저희가 가려는 병원의 스교사님들이 그분들의 경험에 비추어 짐 가져오는 문제를 만류하신 가장 큰 이유는 뇌물없이는 물건 값의 몇배까지도 물려버리는 방글라데시의 무지막지한 관세 때문이었습니다. 속는 셈 치고 국경 세관에 가서 물어 보니 담당자가 그곳 국경에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책을 찾아 봐야 한다며 다음 날 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인도를 떠난 후 처음으로 이삿짐에 대한 고민을 완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어떤 얘기가 나와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평안 가운데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짐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국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 가방을 챙겨 들고 국경으로 출발했습니다. 통관이 가능하다면 트럭이 국경으로 오고 아니라면 현지 사역자의 집으로 가도록 해 놓고 말이지요. 저는(신태희)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남편만 세관 담당자를 만나러 갔었는데 두시간 반 쯤 지나서 남편이 더위에 달아오른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를 외쳤지요.

"기적이 일어났어!"

얘기는 이랬습니다. 전날 남편이 만났던 세관원을 다시 만나서 통관조례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 (말 그대로 엄청 두꺼운 세관법 책을 펼쳐 놓고 말이지요!) 정말 모든 짐을 무관세로 보낼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도와 방글라데시 국경에는 양쪽으로 각각 200m씩 양측 정부에서 허가 받은 특별 임무의 대형 트럭외에 어떤 개인 차량도 다닐 수 없는 No Man Zone 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국경을 통과해서 입출국을 하는 사람들은 손으로 들 수 있는 짐만 들고 걸어서 400m의 국경을 건너게 되구요.

무관세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삿짐을 손으로 옮길 수도 없고 결국 불가능한거구나...생각하고 있을 때, 정말 아직까지도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 세관원이 어떻게든 저희를 도와 주려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고 그 중 한명이 국경 수비대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자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Zero Point 라고 불리는 국경초소까지 걸어가서 만난 국경 수비대의 고위 관리는 인도쪽 200m를 트럭으로 지날 수 있게 특별 허가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Zero Point 를 지나 방글라데시 쪽 200m 는 그 분의 영역 밖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장벽에 부딪히게 되었지요. 그때 그분께서 방글라데시 국경수비대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 두 분이 Zero Point 에서 만나 방글라데시 쪽 200m 도 트럭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 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 쪽
고위관리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직접
트럭까지 준비해 주었지요. 허락을 받고
돌아 오며 인도 국경수비대 분이 남편에게
비밀 스럽게 물었답니다. "Are you C*tian?"
Yes 라고 대답하는 남편에게 "I am, too "
라구요!

결국 저희는 그 국경 사상 처음으로 인도 쪽
200m 는 인도 트럭으로 지나와서, Zero
Point 에서 방글라데시 트럭에 짐을 옮겨
싣고, 방글라데시 쪽 200m 의 No Man Zone
을 지나 무사히 저희가 섬기게 될 램
병원으로 도착했습니다.

처음 이 모든 과정을 남편으로 부터
전해듣고 직접 국경을 넘어 오며 제가
아버지께 여쭙 말씀은 단 하나였습니다.

"왜요? 왜요, 아버지?"

저는 아직도 아버지께서 굳이 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짐을 하나씩 풀 때 그 박스
안에서 나오는 그릇이며 사진이며
옷가지들에서 아버지의 따뜻한 돌보심을
느끼며 감격할 따름입니다. 며칠을
게스트룸에서 머물다 드디어 침대를
셋업하고 매트리스를 깔고 이불을 펴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생생해서 울컥할
따름입니다. 1 년 가까이 지하실 창고에
있다가 열다섯시간 산길을 내려와 이도시
저도시를 거쳐 3 주 만에 도착한 냉장고가
웅~소리를 내며 돌아갈 때 10 월인데도
아직은 너무 더운 이곳에서 다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저희를 시원한 물로

격려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선하심을
맛보며 감사할 따름입니다.

길게 썼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예, 저희는 아버지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 잘 도착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어훈련도 해야하고, 가능한 빨리
병원일을 시작하기 원하는 리더십의
기대에 맞추어 곧 일을 시작해야하며,
병원의 누구도 경험이 없고 저(신태희)또한
현지의 치과사정을 잘 모르는 상태로
치과를 셋업해야 하는 실제적인 일들이 눈
앞에 놓여 있지만 안식월을 시작한 후 내내
고민스러웠던 이삿짐의 문제를 폭풍같은
은혜로 해결해 주신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아는 저희로서선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 없이 매순간 감사와 신뢰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고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을 조금씩 배워 가고 있는 지금의
모든 시간과 경험들이 너무 너무 감사할
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때론 폭풍
같이 때론 산들바람 같이 불어와서 우리를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로 압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1. 11/7-9 방글라데시에서는 처음으로
참석하는 저희단체컨퍼런스가 램
병원에서 있습니다.

램병원뿐 아니라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사역하는 파트너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 가운데 저희가 이
커뮤니티의 한 식구로서 잘 받아들여지고
적응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주세요.

2. 컨퍼런스가 끝나면 바로 수도인 다카로
가서 약 한달간 집중적으로!! 언어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년, 적어도 6개월은 훈련을
해야 하지만 병원 사정상 일단 한달을
시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언어 훈련엔
시간이 답인 걸 잘 알지만 기적을 베푸시는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기적적인 의지와
열심과 지혜를 주셔서 한 달이 몇배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 2년 가까이 시니어 의사가 공백이었던
내과를 새롭게 일으키는 일과, 치과를 새로
시작하는 일 가운데 아버지의 섬세한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모든 과정이
은혜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4. 둘째 하경이가 당분간 한국에서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낯선 환경과 문화
가운데 아버지의 함께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왼쪽 셀폰을 보시는 분이 처음부터 저희를
도와 주었던 인도 세관 담당자 이고 가운데
빨간티셔츠를 입은분이 크*스천
국경수비대 담당자 이십니다.



Zero Point 에서 양측 군인의 입회 아래 인도
트럭에서 방글라데시 트럭으로 옮겨
싣고있습니다.



방글라데시 국경수비대입니다.
근무교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숙소에 짐을 다 옮기고 감격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옷장은 원래
주인이 찾아 갔습니다 ^^



Zero Point, 인도 방글라데시 국경입니다.
이 구간은 보시는 대로 일반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어 짐을 들고 걸어서 건너야 하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왼쪽에 저희 이삿짐을
실은 특별허가를 받은 인도쪽 트럭이
방글라데시 트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루종일 긴장해 있다 밤늦게 병원
숙소에 도착했을 때 저희를 기다리던
따뜻한 환영의 카드입니다. 스위스
산부인과 의사분의 딸이 만들고 각
스위스 사람들이 사인을 하였습니다.